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9월 분양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 들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아산시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탁월한 자연환경과 함께 우수한 교통망, 교육 여건을 갖춰 예비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GS건설

내 집 앞마당이 대형 공원...교통·교육도 ‘우수’

아산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지하철 1호선·KTX역 등 교통망 촘촘 초중고 도보권에 생활인프라도 탁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가 인기다. 공원 부지 중 30%를 민간 사업자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남기는 대신, 나머지 녹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는 대규모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 분양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이 9월 선보이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아산자이 그랜드파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아산시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내 공동주택 부지 1블록과 2블록의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1블록은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전용 74~149㎡, 739가구로 조성되고 2블록은 지하 4층~지상 37층, 6개 동, 전용 84~149㎡, 849가구 규모다. 다양한 수요자의 기호에 맞춰 중형부터 대형까지 여러 타입으로 구성됐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용화체육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화체육공원은 약 16만㎡로 축구장 32개 규모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실내체육관, 어린이체육놀이터 등 체육시설은 물론 생태체험장, 숲속건강쉼터 등의 휴식 및 문화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우수한 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가깝고 KTX천안 아산역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당진-천안고속도로(예정)를 비롯해 서부내륙

고속도로(예정), 서해선복선전철(예정)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현재 조성 중인 아산삼성디스플레이시티를 비롯해 현대모터스밸리, 인주산단, 스마트밸리, 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으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약 9만 명에 달하는 이곳 일대의 종사자들에게 직주근접의 장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초, 용화초, 온양중, 온양용화중, 용화고, 충남외고 등이 도보거리에 밀집해 있고 아산시 중앙도서관과 인접해 있는 등 교육 여건도 돋보인다. 반경 2km 내에 마마트, 롯데마트, 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다. 시청, 법원, 종합운동장, 롯데시네마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최적의 주거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혁신설계를 적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4배이 판상형 및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설계를 통해 선택지를

넓혔고 타입 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공간 특화로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149㎡는 다양한 타입의 대형 펜트하우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테라스가 적용되는 등 희소성 있는 특화평면으로 단지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비규제지역으로 해당제한이 해당되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는 입주시점까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아산시 신동 166-5번지 일대(남동지하차도 인근)에 마련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부동산

스포츠동아 2022년 8월 4일 목요일 11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투시도. 사진제공 | DL이앤씨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분양

서부경남 최고층 랜드마크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 높아

DL이앤씨가 경남 사천시 동금동 일원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사천시 최초의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 데다 서부경남 권역 최고층인 49층의 남해바다 조망이 가능한(일부 세대 제외) ‘오션뷰’ 단지로 조성돼 상징성이 뛰어나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38㎡ 총 677가구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점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고, 정당 계약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사천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은 삼천포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일로와 삼상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가 인접해 삼천포 일대는 물론, 사천시 전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 삼천포중앙여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공고 등과 인접해 교육환경도 좋다.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가치도 높다.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서부경남 권역 최고층인 49층 단지로 조성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서부경남 권역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된다. 방과 방 사이는 물론, 거실과 방 사이의 벽체를 허물어(거실~침실 1간벽 제외) 집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스카이라운지부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실내놀이터·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까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로비계절정원’을 비롯해 지상 3층에 ‘어린이 물놀이터’ 등도 조성된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의 주택전시관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76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은 2026년 3월.

김도현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포스코건설, 5000억 규모 ‘벽적골 주공8단지’ 리모델링 수주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2.4조 돌파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원 영통 벽적골 주공8단지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벽적골 주공8단지는 1997년 준공해 올해 25년이 경과한 단지로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18개 동 1548세대를 수평 및 verticle 증축해 18개 동 1656세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108세대는 일반분양되며 공사비는 5249억 원이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올해 리모델링 사업 총 1조890억 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1조3173억 원의 수주를 달성해 총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4063억 원을



수원 영통 벽적골 주공8단지 리모델링 사업 투시도. 사진제공 | 포스코건설

달성했다.

포스코건설은 벽적골 주공8단지 수주에 앞서 경기 안양시 평촌 한가람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맡았다. 1992년 준공해 올해로 30년째 접어든 이 단지는 기존 9개 동 1068세대가 수평 및 verticle 증축 방식을

통해 9개 동 1197세대로 탈바꿈한다. 공사비는 3256억 원이다.

지난 3월 수주한 2385억 원 규모의 용인 성북역 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수주를 포함하면 포스코건설은 현재까지 총 26개 단지를 수주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 누적수주 업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리모델링 업계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반기에도 고양시 문촌마을 16단지(1099세대), 서울 강동구 명일중앙하이츠(410세대), 송파 잠실현대(386세대), 경남 창원 성원도웰그랜드타운(7189세대)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어 연이은 수주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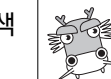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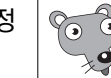
포스코건설은 리모델링법 개정 후 첫 단지인 개포 우성 9차 아파트(개포 더샵트리에)를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국내 수직 증축 인허가 1호 단지인 송파동 성지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아파트가 현재 공사 중이다. 분당 한솔5단지, 무지개4단지 등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꾸린 포스코건설은 올해 1기 신도시 수주추진반까지 신설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이나 재건축과 달리 설계, 인허가, 시공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포스코건설은 수많은 사업수행으로 쌓은 실질적인 사업 경험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많은 사업지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4일(목) 음력: 7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상: 서	 소	행운색: 흰색 길상: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상: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상: 남	 용	행운색: 흰색 길상: 서	 뱀	행운색: 청색 길상: 동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겸손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잠재적 자아와 대화하며 이상을 꿈꾼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열심히 전진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오늘은 황재수가 있는 날이다. 열심히 움직여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돌보일 수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벌여놓은 일들은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상: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상: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상: 북	 닭	행운색: 검정 길상: 북	 개	행운색: 흰색 길상: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상: 서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과정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었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주변인을 믿지 마라.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고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취침 시 서남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할 듯 안 된다.											

오늘의 날씨				4일(목)	
서울	30/10	인천	20/10	춘천	30/60
	26 32		26 30		25 33
강릉	20/20	대전	30/60	전주	30/60
	26 34		26 33		25 33
광주	30/60	대구	20/20	부산	10/10
	26 33		26 33		26 33
창원	10/10	제주	1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5 34		27 33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8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